

제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6. 2. 16(화) 14: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김연, 김장언, 노승범, 박춘호, 변태순, 왕광현
유병영, 유인수, 윤정섭, 이용철, 이혜경, 조유진
- ◆ 안 건 : 미술작품 7건 11작품(조각 10, 회화 1)
[신규 4작품, 재심 7작품]
- ◆ 결 과 : 승인 10작품, 부결 1작품
- ◆ 회의록 확인 : (서명), (서명)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금일 심의위원회 총 12명 중 12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
겠습니다.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
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심의 안내에 따라 사전토론을 먼저 한 다음 개별 채점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5페이지에 보면 작품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도인 듯 보이는데 보도위에 작품을 설치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과 잘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작품 설치위치를 표시할 때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각을 보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오브제들이 몇 개가 놓여 있는데 잔디 안에 들어갔을 경우 잔디나 이런 조경 부분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어느 일정부분은 보도 패턴으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심의 도서 접수시 명확한 위치 등이 표기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님 어떠시나요? 시내에서 많이 나와 있는 작품이죠?
- 굉장히 익숙한 작품입니다.
- 특별하게 시공상의 문제점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 구조의 안전성이나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씨를 입체화해서 표현한 세 작품입니다.
- 처음 심의 받았을 때 참여하셨던 위원분들은 안 들어오셨습니까?
- 처음 심의 들어왔을 때 작품이 두께가 10T로 좀 날카로와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작품은 지난 번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약간 입체적으로 만든 거 같습니다.
- 하단에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 하단이 화강암인가요?
- 스테인인리스입니다.
-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경 안에 있어서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 개념적인 부분은 재밌는 것 같네요
- 지난 번 심의 시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의견입니다.
- 작품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작품은 안에 들어가서 앓을 수도 있는 데 굵히거나 그런 면이 우려스럽습니다. 심의도서 상에 모서리 부분에 대해 보완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는 각자 받지만 작품설명을 보니까 한 개념으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급속으로 제작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 충분히 보셨으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작품은 자체 내에서 공모로 뽑혔습니다. 가산점이 10점 있습니다.
- 공모작에 대한 10점부여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에는 공개공모를 통하든지 시나 구 또는 공사에서 공모를 거친 작품은 10점을 부과하는 것과 두 번째 자체 협력업체의 지명공모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공모요강 첨부이 되어 만 공모로 인정이 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같습니다.
- 자체적으로 공모지침서와 공모 결과서 공고문 등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나라장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체 공모요강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이런 구조는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 여기 마포구 아닌가요? 마포구는 공모대행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 마포구에서 주관하는 공모는 아니고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입니다.
- 자체 공모는 공모로 인정하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점수배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체 공모를 하셨지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접수한 게 아니라 2개 작품 중에서 선정된 작품이어서 일반적인 공모라고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게 공모라는 건 어떤 식으로 알렸습니까?
- 자체 공모를 하겠다고 자치구에 접수하였습니다.
- 그런 경우엔 공모라고 보긴 힘들 듯 합니다. 그냥 가산점 없이 평가를 하여야 할 듯 합니다.
- 공모를 했을 때에는 결정권자는 누구죠?
- 공모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별도의 선정 위원회를 꾸며서 이루워졌습니다.
-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하는 건 좋은데 최종결정을 건축주가 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에 의미를 둔다면 결정자체도 제3자가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가산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명으로 해놓고 건축주가 고르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출된 서류에는 7분이 심사하셨으며 이 중 3분이 우리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분이 참석하셨습니다.
- 그렇게 하더라도 2~3작품을 골라서 건축주가 최종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을 어떻게 갖냐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작품은 좋지만 제도적으로 기준은 마련해야할 거 같습니다.
- 의견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번 건은 공모로 보기에 다소 미흡하니 가산점부여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가 안 되어 있으니 서류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나요?
- 서류상으로는 자체 공모에 대한 자치구의 신청서부터 공모지침서, 공고문, 선정결과서 등 하자는 없이 제출되기는 하였습니다.
- 마포구는 공모대행제로 하고 있는데 자체 공모를 한 것도 이상하군요.
- 그럼 일단은 가산점 부여 없이 다른 작품과 동일하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작품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전시장에서 많이 본 작품으로 추론이 되고 미적 감각, 여러 가지 조형성 환경하고 조화로우면 흠잡을 것이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작품이 있네요.
- 조각은 무난한 것 같은 데 회화는 내부와의 조화를 잘 모르겠네요. 회화 관련 되서는 구입비이겠지만 내역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 심의도서상의 인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난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 건물 벽면이 재료가 뭔지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소와의 관계성을 설명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내부에 어떻게 거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부결되었던 작품은 안 나와있습니까?
-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 재심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1번작품은 변형되어 있는지 알겠는데 2번 작품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가 고유의 아이덴티티

라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그러게요 색깔만 달라지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네요
- 이번 작품이 시리즈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작품을 심의도서에 넣었는데 서울시에서 기준을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몇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라라는 규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의 부결작품과 이번 작품은 좀 무성의해 보입니다. 과거의 작품을 보니 조형적으로는 많이 한 작가인데 좀 더 새로운 작품이 놓여야 할 거 같은데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비전문가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작가시리즈 첨부한 것을 보니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작품으로 봐서는 좋은 작품인 것 같진 않지만 작품활동으로 봐서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분인가보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작가로서의 고집으로 보입니다. 이런 작품을 하고 있다고 어필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집니다.
- 작가의 어필을 따라줘야 하는데 심의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작품이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설치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 5-2번 작품이 처음하고 두 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밀집도라든가 작가가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처음보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작품은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 저는 심의에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제안서들이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심의해야 할지, 우리는 예술성보다 공동성을 판단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소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새싹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난 소가 좋고 새싹이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형태인 듯 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근거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의미를 준다든지 우리 단지는 왜 해야 한다든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전부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심의 항목에도 예술성으로 포괄해 버립니다. 공동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공공에 기여 하려고 해야 하는데 너무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표시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한 곳인데 그런 발언하기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공공과 트렌드를 잡아줘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설치되어 있는 작품 중 상당수가 철거 했으면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 언젠가는 철수를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여기서 제어해야지 공인해주는 일을 하면 안 될듯 싶습니다.
- 다 동감합니다. 저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적절한 장소인지부터 평가해야하는데 사실 지금 판단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건들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프로세스 자체가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허가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항목에 공공성 등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곳에 공공미술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변 다 보여지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단편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놓여지다 보니 전체적인 거리 가로에서의 공공성이라든가 미술작품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도시랑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 작가보다는 시민위주로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 그러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첫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는 해야 하는데 한 달 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심의가 들어와야지 부결이 되어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 ○ ○ 저는 조각가이면서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공성이나 장소성 등을 정확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위에 치우고 싶은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 공공미술, 미술작품제도가 생기면서 작품이 무작위로 생산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작품을 보면 한눈에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작품을 보면 작가의 작품이라고 색깔을 읽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가의 작품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으로 갈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제가 볼 때는 작가를 밝히고 작품성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를 믿고 맡기는 거죠. 작가이름을 가리고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는 채 추측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작품성을 볼 건지 아니면 공공성으로 볼 건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 LH나 SH에서 공모기준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어서 아무나 유행하는 트렌드의 디자인을 몇 개 뽑아 섞어서 작품을 내고 걸으로 봤을 눈에 띄는 것만 선정이 되고 작품에 대한 작가의 고민 없이 이미지나 그래픽 잘 하는 것만 보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잘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 색이나 깊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 ○ 공공에 맞는 예술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예술성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 ○ 공공미술에서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작품위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평가대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 동의합니다.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공공성이라는 평가지표를 설정을 한다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퍼블릭 아티기 때문에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표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예술가의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또한, 작가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는 것 보다 작품들의 보완을 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바뀌어가면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채점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태까지 갈등이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규정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의견들이 나올 때마다 종합을 계속 하고 있으니 각각 의견이 충돌이 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자 작품에 대한 평가나 느끼신 것 들은 점수로 환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표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의시 이런 것들이 필터링이 되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이 되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심이 들어간 작품인데, 비례의 문제가 있어 고정축을 설치하여 보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문제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7번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4차 재심작품입니다.
- 위원장님 혹시 4번하고 7번 작가님이 같습니까? 조형물의 부속품들이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 확인해보니 다른 분이시네요.
- 왕광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작품의 이전 심의도 참여했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 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채점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오늘 심의 결과 5-2번 1작품이 부결되고 나머지 10개 작품은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 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